

중국 연변 조선족 전통농가의 시설설비 실태조사*

A Field Study on the Facilities and Equipments of the Traditional Farmhouse in Lungching, China*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고도임

강사 박남희

강사 최형선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윤복자

박사과정 박경난

Dept. of Consumer & Housing, Catholic University

Prof. : Koh, Do Yim

Lecturer : Park, Nam Hee

Lecturer : Choi, Hyung Seon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 : Yoon, Bok Cha

Doctoral Course : Park, Kyung Na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대상지역 개황

III. 조사결과 및 논의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paper is a part of "The Study of the Traditional Korean Ethnic Farmhousing in Yanbia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ilities and equipments of the traditional farmhouse in the villages of Lungching China. The data is collected from 124 households in the villages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 and photograph.

The major findings are : 1) The people in farmhouse use wood as a fuel for cooking and the method of cooking is traditional style using their iron pots. 2) Heating system of the house is ondol type of heating using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96년도 국제협력연구과제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와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가 수행한 공동연구의 일부임.

본 연구는 1997년도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wood which is also traditional type. This means that the floor heating of the house and cooking food can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3) Even though pump system and running water system are the two kinds of water supply that are available in the villages, majority of people use pump system. Many houses have no drainage facilities but few houses have got bad drainage system. 4)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farm house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 ventilation is not considered and hence it is not provided in most of the houses. 5) Farmhouses are oriented to the south and the windows and the doors are covered either with vinyl or cloth during winter time effecting the lighting system of the house. 6) Many of the houses use incandescent lights. But the switches and the electric Outlets are short in number. 7) Sanitation facilities are worst equipped compared to other facilities present in Lungching villages of Chin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남한에서 한국의 전통주택과 농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전통주택과 농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북한의 전통주택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인접 지역인 중국 연변 지역의 조선족 주생활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며,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개황과 주생활에 대한 연구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박경희, 1987, 1994; 집필소조, 1988; 전경수, 1989; 김숙련, 1991; 한상복, 1993; 강영환, 1994; 김봉렬, 1994; 신재익, 1994; 심혜숙, 1994; 이왕기, 1994; 연변대 출판위원회, 1995; 울산대 건축 연구소, 1995; 국립 민속박물관, 1996; 김종영 외, 1996; 권태환, 1996; 고도임 외, 1997).

특히 용정 달라재지방은 함경도와 가깝고 현재에도 함경도민들과의 접촉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이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전통 주거 계승과 변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선족의 농가 생활과 농가 주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를 보면 취락 구조, 건축 구조와 공간 및 재료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 집 속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지 않다. 특히 주생활의 지원 체계인 시설설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농가 주택의 시설설비 실태를 조사하여 조선족의 물리적인 주거수준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시설설비라 함은 취사,

난방, 급배수, 환기, 채광, 전기, 생리위생설비 등을 말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관찰, 기록, 실측, 사진촬영, 녹음을 하고 이 때 사용한 설문지는 본 연구팀이 작성하여 예비조사(1995년 7월)를 거쳐 구조화한 것이다. 4차에 걸쳐 조사된 가구는 총 126가구이며 분석에 사용된 가구는 124가구이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수, 백분율, 분할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팀은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1996년 1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본조사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용정의 달라재 지방 즉 길림성 용정시 지신진(吉林省 龍井市 智新鎮)의 명동촌(明東村), 신동촌(新東村), 영암촌(英岩村), 대흥촌(大興村)의 4개 자연 부락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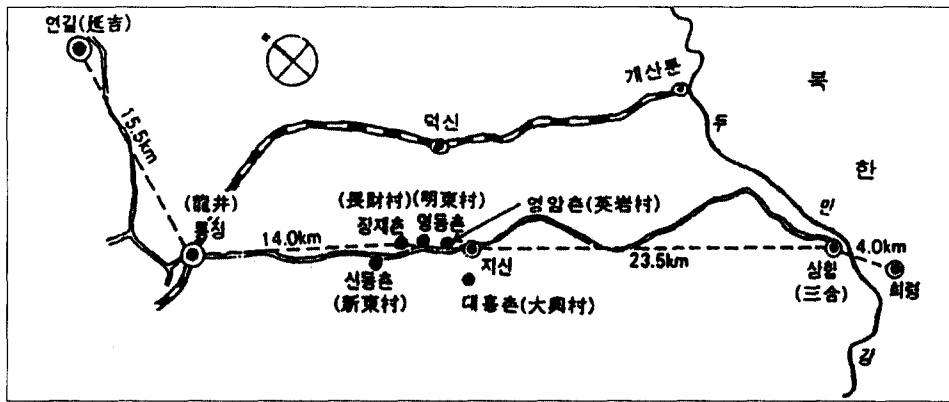
조사대상 농가는 건축된지 10년 이상의 전통농가로 새로 지은 농가와 벽돌집은 제외되었다. 또한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이사온 지 10년 이상된 가구가 대상이 되었고, 조사대상 응답자는 40세 이상의 주부나 가구주 혹은 노주부(老主婦)이다.

II. 연구대상지역 개황

용정시 지신진은 지신, 신동, 장재, 명동, 대흥, 동신, 원동, 성남, 성동, 덕수의 10개 촌으로 이루어졌

<표 1> 조사마을의 개관

마을	구분	개척시기	개척의 성격	총가구수 (호)	남녀구성(명)		조사가구수 f(%)	비고
					남	여		
용정시	지신진	-	-	1,248	5,355		-	1982년 통계
용정시	명동촌	19세기 말	개별 이주촌	148	405	402	63(50.8)	1996년 통계
	신동촌	20세기 초	"	79	171	160	20(16.1)	
	영암촌	19세기 말	"	43	72	67	6(4.8)	
	대흥촌	"	"	112	216	208	35(28.2)	
계		-	-	382	864	837	124(100.0)	



<그림 1> 조사지역과 연관된 마을과 도시

(출처: 장재촌, 1994, p.76 보완)

고, 총 33개의 자연툰(屯)을¹⁾ 포함한다. 이 10개 촌 중에서 신동, 명동, 대흥, 영암촌 등 4개 촌에서 124 가구를 정밀 조사하였다. 중국 길림성의 용정시와 조사 지역의 마을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4개 마을이 모두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이고, 대흥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새 도로에 가까워서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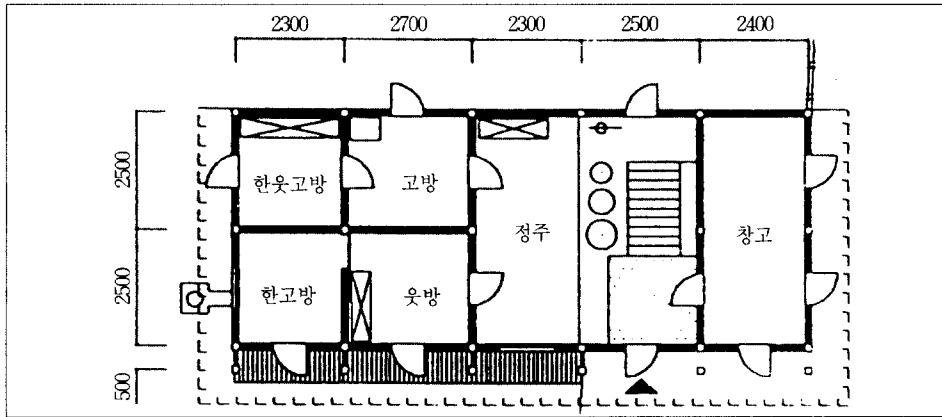
1. 농가의 일반적 특성

1)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가족

수가 평균 3.25명이었고, 호주의 평균 연령은 약 54세. 설문지에 응답한 주부(대부분은 주부이고, 몇 명은 호주의 노모임)의 평균 연령은 약 53세, 조사대상가구 주부의 평균 연령은 약 51세였다. 호주의 학력중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를 합하면 70.9%(88명)로 다수를 차지하나, 주부들의 경우는 62.9%(77명)로 8%(10명)나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가구의 직업은 100%(124가구)가 모두 농업인데 호주 3명이 군인과 공무원이고 주부 1명이 교원으로 나타났고, 종교는 3~4명만이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이고, 무종교가 남녀 똑같이 91.1%(117명)로

1) 툰(屯): 자연 부락의 개념으로 한 개의 작은 마을인데 이것이 모여서 촌(村)을 이룬다. 명동촌은 7개 툰으로 구성되었다.



<도면 1> 함경도식 겹집: 명동촌 리광선씨 댁



<사진 1> 명동촌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보면 중국에서 호도거리제도²⁾가 실시된 후 이 지역 농촌 경제도 차츰 발전하여 식량이 풍부하고, 각 집에서는 부업으로 가축도 다양하게 사육하고 있다. 이 지역은 논보다는 밭이 더 많은데 논 면적은 가구당 평균 2,269.1m², 밭은 16,351m²이다. 연평균 소득은 10,843원(元)³⁾으로 조사되었고, 1년간 세금은 평균 586.6원이다. 부채가 있는 집이 34.7%(43가구)인데 평균 4,709원의 부채가 있었다.

2) 주택 특성

함경도식 겹집(양통집)은 한 용마루 아래에 각 방들이 겹으로 배열되어 있는 집이다. 이 겹집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지인데 이곳은 부엌간(정주)과 정지구들(큰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간 사이

2) 호도거리제도: 중국에서 집단체제의 농토를 가구별로 배분한 토지개혁제도이다. 1978년에 제도가 마련되고 연변지역에서 1982년에 실시되었다.

3) 원(元): 1원은 한국 돈으로 약 100원이다. 1997년 4월 한우 최고기 1근(500g)에 8원, 쌀 1근에는 1원 50전~2원이다. 농사 일 하루 품삯은 25원이다.

에 벽이 없는 것이다(도면 1 참조). 조사대상농가의 주택 특성 가운데 건축 연대를 보면 1966년~1977년 사이에 지은 집이 가장 많았다(25.8%). 달라재 농가의 칸수⁴⁾는 5칸집이 34.7%(43가구)로 가장 많고, 4칸집 29%(36가구), 6칸집 23.4%(29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평균칸수는 약 5.2칸이었다. 농가의 집터는 최소 70m²에서 최대 10,005m²까지 있으며 평균 711.5m²으로 비교적 널찍한 땅에 본채와 부속채를 짓고 앞, 뒤로 텃밭을 두고 담배나 채소 등을 재배한다. 주택 규모를 보면 최소 30.8m²(9.3평)의 집과 최대 84.0m²(25.4평)의 집이 있고 평균은 51.1m²(15.5평)이다. 거주기간은 평균 21.9년, 주택의 향은 75.8%(94가구)가 남향이었고, 지붕재료는 초가 지붕이 56.5%(70가구)로 가장 많고, 양기와 34.7%(43가구), 한기와 8.9%(11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 1>은 명동촌의 한 부분이다.

2. 시설설비 조사결과

1) 취사설비

취사연료와 취사방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나무였고(54.5%), 가마솥(48.4%)과 전기·가스채가마(32.0%)로 취사를 하고 있었다. 하나만 사용하는 가구는 거의 없고 대부분 병용하고 있었다.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취사시 난방을 겸하는 가구가 많다. 특히 부뚜막에는 솥을 3개 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해방 전까지는 주로 2개의 가마솥을 설치하였으나 해방 이후 조선족의 가마공장이 설립되어 대량생산하여 공급이 시작

<표 2> 취사연료 및 취사방식

빈도		빈도*	
취사연료	빈도*(%)	취사방식	빈도*(%)
나 무	121(54.5)	가마솥	124(48.4)
가 스	36(16.2)	전기·가스채가마	82(32.0)
전 기	65(29.3)	가스레인지	50(19.6)
계	222(100.0)	계	256(100.0)

* 중복응답하였음



<사진 2> 정지의 모습

되면서 대부분 3개로 바뀌었다고 한다(박경휘, 1994). 경우에 따라서는 켄베가마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켄베가마는 가마솥을 떼어낸 자리에 번철을 설치한 것을 말한다. 켄베가마를 설치한 가구는 45가구(36.3%)였는데 주로 반찬 조리시에 사용하며 겨울철에 실내의 습기를 없애주는 역할도 한다. <사진 2>는 정지의 모습으로 부엌간과 정지구들과 펌프가 보인다.

2) 난방연료 및 설비

난방연료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난방연료로는 나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 연료로 톱밥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톱밥은 인근의 제재소에서 구입해서 쓰고 전기풍구를 이용해 불을 땀다. 이외에도 추수가 끝난 후에는 뽕짚이나 우수숫대 등을 말렸다가 떨감으로 쓴다. 난방방식은

<표 3> 난방연료

N = 124, f(%)

난방연료	빈도	빈도
나 무		122(98.4)
나 무 + 톱밥		2(1.6)
계		124(100.0)

4) 칸수: 이 지방의 칸수 세기는 남한과 다르다. 즉 <도면 1>의 라광선씨 댁은 본래 8칸집이었는데 현재 7칸이 되었다. 남한의 칸수 세기로 보면 이 집은 10칸집이다.

한국에서와 같은 재래식 아궁이에 붙을 때서 구들을 덮히는 온돌난방이다.

3) 급배수설비

펌프시설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펌프는 전체 가구 가운데 1개 있는 가구가 가장 많았고(68.6%), 주로 전기모터펌프(50.0%)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수동펌프를 이용하는 가구도 많았고(48.8%), 펌프가 놓인 곳은 대부분 부엌간의 뒷문쪽(93.0%)이었는데 이는 취사작업의 용이함을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이는 펌프를 설치할 당시 동네 전체가 한꺼번에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거주자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정부에서 설치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펌프는 주로 1970년 - 1980년 이전에 39.8%, 1960년 - 1970년 이전에 33.7%의 가구가 설치한 것으로 보아 약 74%의 가구가 60년에서 80년 사이에 펌프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는 상수도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60년 이전에는 약 8%의 가구만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펌프 옆에는 물을 받아 두는 큰 항아리를 놓아 한번에 많이 받아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수도를 설치한 가구는 38가구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37가구(97.4%)가 1990년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의 위치 또한 펌프의 위치와 큰 차이가 없으며 하수도는 상수도의 위치와 같다. 하수도의 설치년도를 보면 1990년 이전에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총 37가구 가운데 14가구(38%)이며, 90년 이후에 설치한 가구가 23가구(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에 하수도가 없는 가구도 87가구로 전체가구(124가구)의 70%로 나타나 위생설비의 부

족함을 드러냈고 또한 하수도가 있다 하여도 겨울에 물이 얼거나 배수호가 막히거나 쥐나 벌레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많았다. 이는 아직까지 구정물통에 물을 모았다가 텃밭이나 마당에 버리는 일이 습관이 되어 하수 처리에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마을 단위의 배수설비에 관한 기반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환기설비

조사대상가구에서는 환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정지와 방 사이에는 벽이나 다른 칸막이가 없으나 여름에는 창문을 모두 열어 놓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겨울에는 취사나 난방시 음식냄새와 연기로 실내에는 냄새와 습기가 가득하고 시야가 흐려지나 추위를 막기 위해 문을 열지 못하고 특히 창문마다 추위에 대비해 비닐이나 천 등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기 오염도가 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참고 지내고 있었다.

5) 채광설비

조사대상주택의 창과 문을 보면 주택의 향이 주로 남향이었기 때문에(75.8%) 일조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창과 문의 설계는 채광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추위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면적만을 할애하여 계획하였다. 창과 문의 재료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창문의 재료로는 유리(96.0%), 창호지(4.0%) 등이 쓰이고 있는데 유리가 압도적이다. 이 지역에서는 1930년대에 이르러 창문에 창호

<표 4> 펌프의 갯수 및 종류와 위치

N = 124, f(%)

갯수	빈도	빈도(%)	종류	빈도	빈도(%)	위치	빈도	빈도(%)
없음(상수도)	38	30.6	수동	42	48.8	뒷문쪽	80	93.0
1 개	85	68.6	전기모터	43	50.0	주출입문쪽	5	6.0
2 개	1	0.8	수동+전기모터	1	1.2	마당	1	1.0
계	124	100.0	계	86	100.0	계	86	100.0

<표 5> 창문 및 출입문 재료

N = 124, f(%)

창문	빈도		주출입문	빈도		부엌간 뒷문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유리	119	(96.0)	나무유리문	112	(90.3)	나무유리문	86	(69.4)
			나무비닐문	9	(7.3)	나무비닐문	15	(12.1)
창호지	5	(4.0)	나무문	3	(2.4)	나무문	14	(11.3)
			기타			기타	7	(1.6)
계	124	(100.0)	계	124	(100.0)	계	124	(100.0)

지 대신 유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휘, 1994). 햇빛을 받기 위해 나무유리문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기는 하였으나 겨울에는 추위에 대비하여 비닐 등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실내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햇볕이 잘 들지도 않았다. 뒷문은 북쪽을 향하고 있어 나무유리문을 사용해도 채광에 큰 효과가 없고 또한 사용 빈도가 줄어들면서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관계로 폐쇄하여 비닐이나 두꺼운 천 등으로 덧씌워 놓은 가구가 많았다.

6) 전기설비

전기설비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6>과 같다. 백열등을 사용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고(53.2%), 형광등과 백열등을 같이 사용하는 가구가 그 다음이었다(25.0%). 박경휘(1994)에 의하면 1950년대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기화가 실현되었고 연변지역은 1960년대 후반부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은 전기화가 비교적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명설비는 각 방마다 있지 않고 정지에만 있는 경우가 많았고 혹시 있다 하여도 정지의 것만 켜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사대상가구 중에는 조명설비를 정지와 옷방 사이 벽의 상부 일부를 헐어내고 양쪽 방에서 동시에 조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구도 있었다.

조명 스위치와 콘센트는 각각 1개 있는 가구가 가장 많았고(89.5%, 82.3%), 2개 있는 가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조명 설비가 각 방마다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위치를 따로 벽면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백열등이나 형광등 자체에 달려있는 스위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콘

<표 6> 조명기구의 종류 및 스위치와 콘센트 개수

N = 124, f(%)

종류	빈도		구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형광등	27	(21.8)	스위치	1개	111	(89.5)
				2개	13	(10.5)
백열등	66	(53.2)	계		124	(100.0)
형광등 + 백열등	31	(25.0)	콘센트	1개	102	(82.3)
				2개	22	(17.7)
계	124	(100.0)	계		124	(100.0)



<사진 3> 전기설비

센트도 대부분 1개의 콘센트에 연장코드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스위치는 옷방과 고방 사이의 기둥(56.0%)과 정지의 천장(18.7%), 콘센트는 정지 뒤쪽의 벽면(28.5%)과 옷방(24.3%), 고방쪽 벽면(12.5%) 등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은 건축 당시부터 고려된 것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전선이 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생활의 대부분이 정지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절이 용이하도록 정지나 옷방에 설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 3>은 옷방의 모습으로 천장에 전기 설비가 보인다.

7) 생리위생설비

(1) 세면·목욕설비

세면도구로는 세수비누를 사용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샴푸를 쓰고 보통은 빨래비누로 머리를 감고 있었다. 세면이나 세족이나 머리감기와 같은 행위는 세숫대야를 이용하여 부스께나 바당에서 하고, 사용한 물은 바당에 있는 구정물통에 모았다가 마당이나 길가, 도랑에 내다 버리고 하수도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도에 버리고, 바당에서 세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가 있어도 마당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머리감기는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나타났다. 목욕시설을 갖춘 집은 없었으며 여름에는 바당이나 부스께에서 혹은 인근 강가에서 목욕을 하였고 겨울에는 물을 데워 정지에서 하거나 가끔 용정 시내 목욕탕으로 가고 있었다.

(2) 변소설비

조사대상가구마다 변소는 거의 있었으나 공중변소를 사용하는 가구도 3가구가 있었다. 변소의 위치를 보면 울타리 안에 있는 가구가 많았고(89.5%) 주변에는 외양간이나 돼지굴이 있으며, 변소에 묻이 없는 가구도 있었다(7.3%). 변소를 만든 재료로는 나무널빤지가 주종을 이루고 벽돌담을 쌓은 경우도 있었다. 변소는 보통 굴뚝 반대편에 있는데 땅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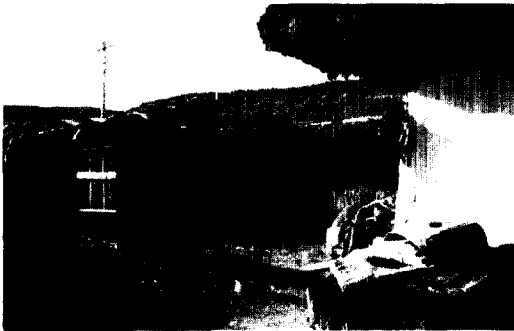
으로부터 일정 높이(30~40cm)를 띄우고 그 위에 널빤지를 걸쳐서 설치하는데, 간혹 바닥을 파서 드럼통을 묻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아무 것도 묻지 않고 땅을 파서 만든 재래식 변소이다. 크기는 사방 1m 안팎에 높이도 성인 남자 키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변소에는 조명설비가 없어서 밤에는 손전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변소를 이용한다. <사진 4>는 초가집 옆에 보이는 변소의 모습이다.

IV. 결 론

중국 용정지방의 명동촌, 신동촌, 영암촌, 대홍촌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형성된 개별 이주촌이다. 이중 신동촌과 영암촌은 순수 조선족 마을이고, 다른 두 마을은 소수이나 타민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곳 조선족은 거의 다 함경도에서 그 조상들이 이주해와서 함경도식 양통형(겹집) 주거 평면의 집을 짓고 살았고, 지금도 이 형식을 보존하고 있다. 정지간이 특색인 이 겹집에서는 대다수가 가마솥 세 개를 걸고 나무를 때어서 구들을 데우고 동시에 취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온돌방에서는 좌식생활을 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초가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양기와의 소수가 한기와잡이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 이후, 특히 호도거리제도가 실시된 후로 농민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농가생활은 여러가지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과 제언을 서술한다.

1. 농가에서 식사 준비는 전통적 무쇠가마솥을 이용하고 연료는 모두 나무를 때며, 온돌방을 덥히는 것과 취사 준비를 동시에 하는 것도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상수도 시설은 두가지인데 펌프와 간이 상수도 시설이 있었으며 펌프는 수동과 전기모터가 달린 것이 있었다.
2. 환기와 채광설비는 주택 건축시 특별하게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설비는 주택의 구조적인 노후화로 설치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 생리위생설비는 조사대상이



<사진 4> 변소

구의 시설설비 가운데 가장 수준이 낮은 상태였다.

3. 연변 조선족 전통농가의 건축은 한국에서 건너간 이민 세대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간직한 채 고급기술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였다기 보다는 일부 기술자와 목수,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민가건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연변 조선족 전통농가의 주거수준은 아직까지 낙후된 수준이나 최근들어 도시 문화가 보급되면서 점차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선족의 주생활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주생활도 조사하여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전통주거문화의 흐름과 정통성을 파악하고 현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영환(1994).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의 주거공간 및 생활양식. 한국건축역사연구, 5.
- 2) 고도임 외 3인(1997).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 정지간과 생활행위 조사연구. 한국 주거학회지, 8(3).
- 3) _____(1997).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의接客장소와接客행위. 한국농촌생활과학학회지, 8(2).
- 4) _____(1997).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의 주택특성 및 주택유형화.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7권 1호.
- 5) 국립민속박물관(1996). 중국 길림성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9.
- 6) 권태환(1996). 세계의 한민족: 중국. 국토통일원.
- 7) 연변대학 중국 조선족 총서 편찬위원회(1994). 중국 조선족 연구 1, 2, 3.
- 8) 김봉렬(1994).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의 마을과 주거. 한국건축역사연구, 5.
- 9) 김종영 외 3인(1996).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 형태와 그 지역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1).
- 10) 박경휘(1987). 조선민족사 연구. 중국 심양 료녕 출판사.
- 11) _____(1994). 중국 조선족의 의식주생활 풍속. 집문당.
- 12) 심혜숙(1992).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 분포. 연변대학 출판사.
- 13) 신재억(1994). 중국 연변지구 조선족 주거의 건축적 특징. 한국건축역사연구, 5.
- 14) 연변대 편찬위원회(1995). 중국 조선족의 우열성 연구. 서울대 출판부.
- 15) 울산대 건축연구소(1995). 장재촌. 울산대 출판부.
- 16) 한상복, 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 출판부.
- 17) 집필소조(1988).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중국의 우리 민족. 도서출판 한울.